

증권

7월 거래대금은 감소. 변동성 확대 속 배당에 주목

증권 장영임 / yijang123@sks.co.kr / 02-3773-8424

Signal: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MoM 감소

Key: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로 거래대금 감소할 수 있으나,

Step: 절대적인 거래대금 레벨 견조, 배당 매력도 존재. OVERWEIGHT 유지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99.5 조원 기록하며 MoM 감소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99.5 조원(KRX 43.0 조원, NXT 23.3 조원, ETF 33.3 조원)으로 전월(137.5 조원) 대비 27.6% 감소하였다. 2분기 118.1 조원 대비로는 둔화된 모습이나, 1분기 84.8 조원 대비 높아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KRX+NXT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분기와 유사한 66 조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33.3 조원으로 1분기 17.8 조원, 2분기 28.0 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며 거래대금의 하방을 지지하였다. 특히,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ETF 거래대금 성장을 견인하였다.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261 조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36%를 차지하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로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할 가능성 높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8월부터는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 기여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3천만원이 적용되었으며, 적용 당일인 7월 31일 하루 회전을 평균이 52.5%를 기록하며 기존 평균 회전을 160%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거래대금(매수+매도/2)은 3.2 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평균 11.7 조원 대비 73% 감소하였다. 예탁금 상향 후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이를 7월 ETF 거래대금에 대입하여 추산한 결과, 규제 강화로 전체 ETF 거래대금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일평균 거래대금으로는 8.5 조원 감소 효과이다. 향후 8월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거래용자잔고 감소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7월 109.7 조원(MoM -15.5%)을 기록하였다. 5~6월 130 조원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계속해서 100 조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거래용자잔고는 34.5 조원(MoM -8.4%)으로 마감하였다.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두 지표 모두 MoM 추세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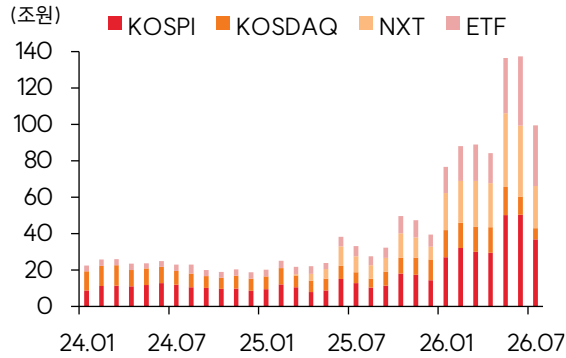
절대적인 거래대금 레벨과 배당 매력 고려하여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 우선주에도 관심

상반기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일평균 거래대금 지표가 7월 들어 MoM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일평균 거래대금의 절대적인 레벨이 견조하고, 2) 최근 주가 조정으로 유니버스 증권의 평균 P/B가 0.9배 수준까지 하락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한다. Top Pick 역시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으로 유지한다.

증시 변동성이 매우 높은 현재 국면에서 투자전략으로는 배당 매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증권업의 하반기 이익 둔화 우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상고하저' 실적 흐름을 가정하더라도 연간 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당 매력이 높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유니버스 증권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6.0%(미래 1.8%, 한투 6.7%, 삼성 7.4%, NH 7.8%, 키움 7.3%, 대신 4.6%)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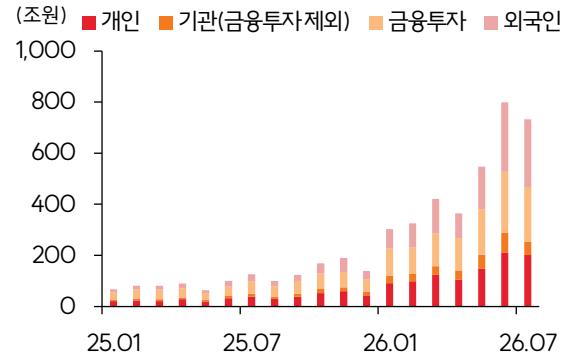
보통주 뿐 아니라 배당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선주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와 NH 투자증권의 우선주 배당수익률은 9%로 증권 우선주 중 가장 높아 매력적이다. 거래량이 적지만, 1) 한국금융지주의 우선주 괴리율은 25.4%로 양호한 수준이며, 하반기 실적 둔화 국면에서도 업종 내 가장 높은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배당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NH 투자증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Quantiwise, 넥스트레이드,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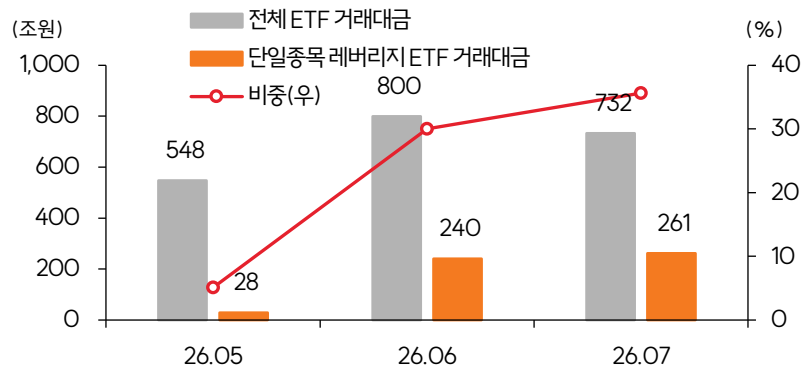
ETF 주체별 거래대금 추이



자료: KRX,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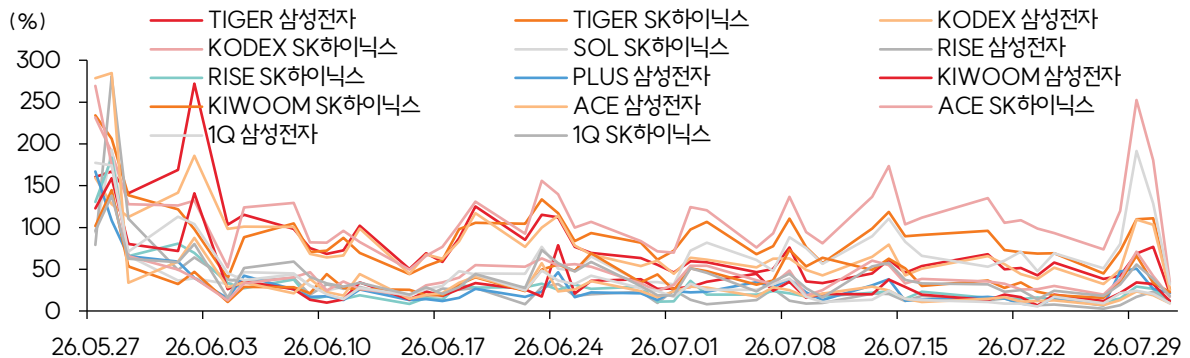
주: (매수+매도)/2

전체 ETF 거래대금 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비중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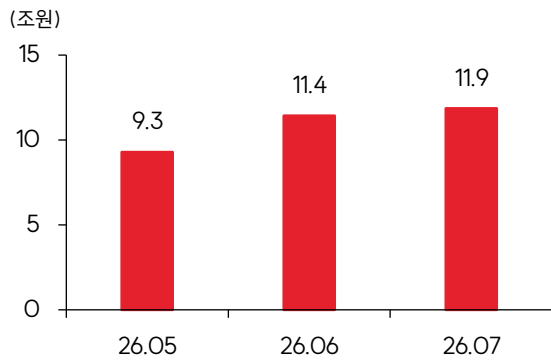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전율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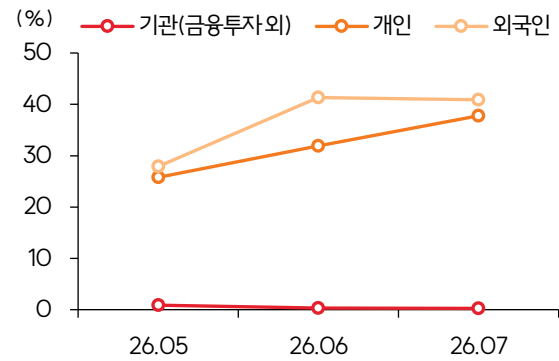
주: 인버스 2X 제외, 연환산 x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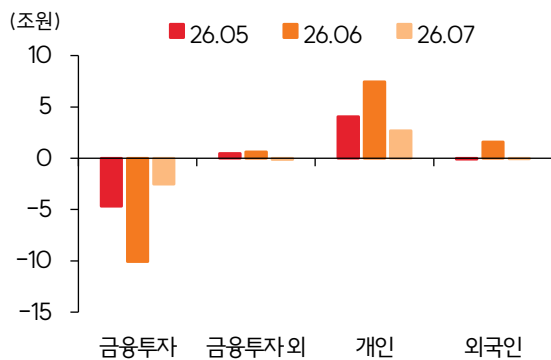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주체별 거래 비중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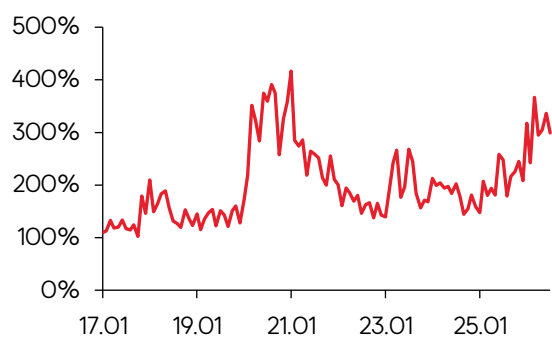
주: (매수+매도)/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주체별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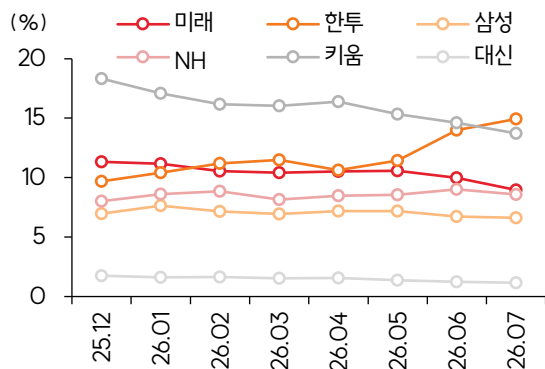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시장 회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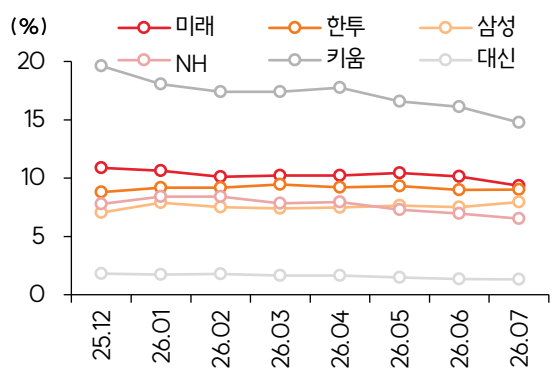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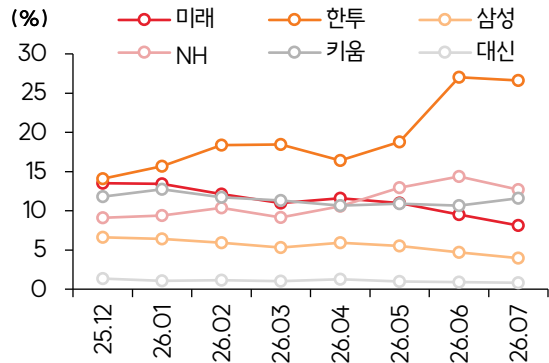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s+,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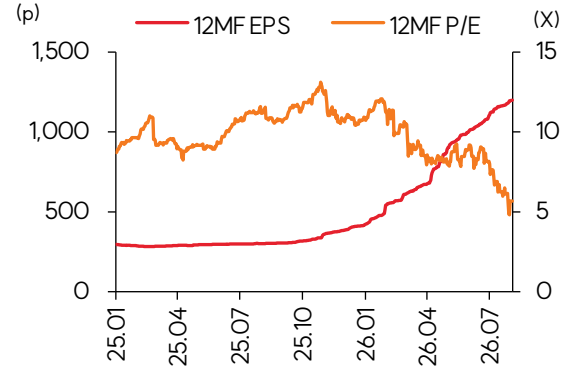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s+,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ETF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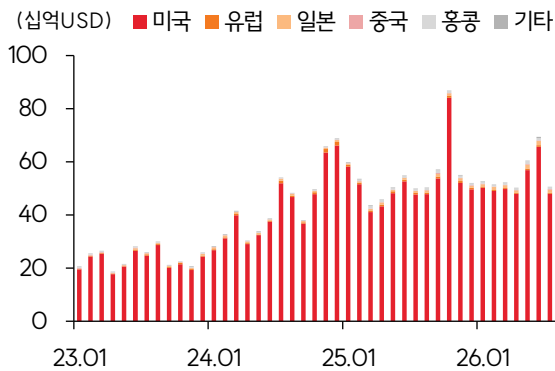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s+, SK 증권

KOSPI 지수 12MF EPS 및 12MF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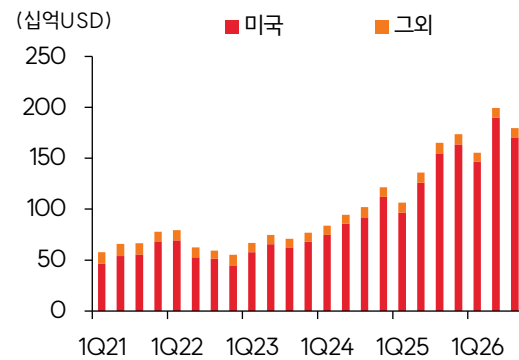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해외주식 거래대금 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K 증권

외화증권 보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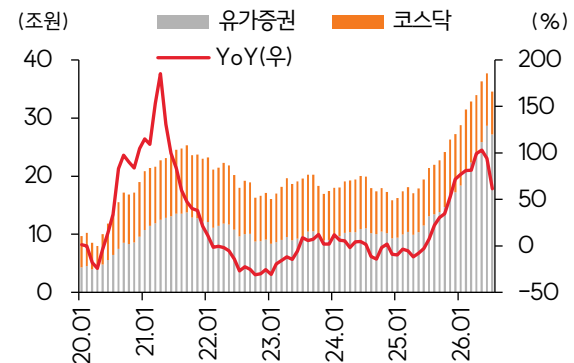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K 증권

월별 투자자예탁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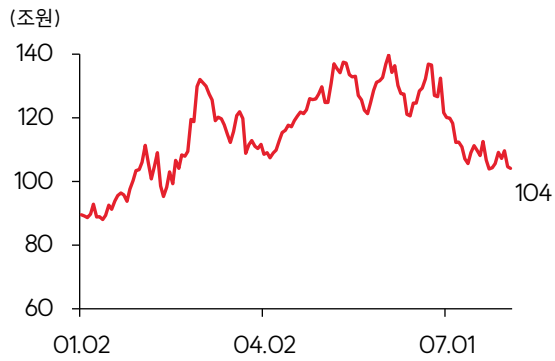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월별 신용공여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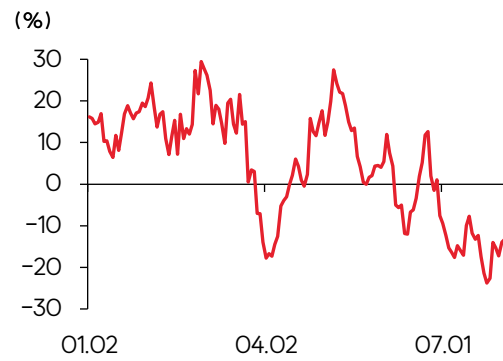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투자자예탁금 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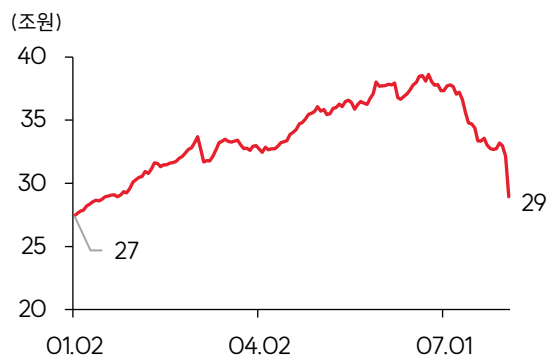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투자자예탁금 Mo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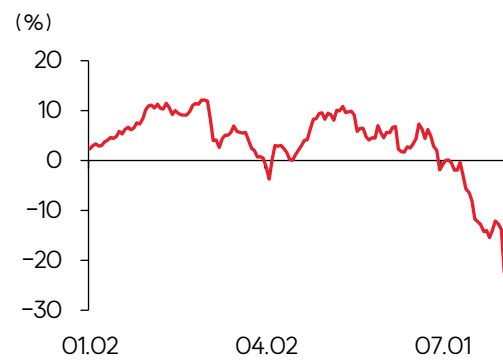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신용공여잔고 일별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신용공여잔고 Mo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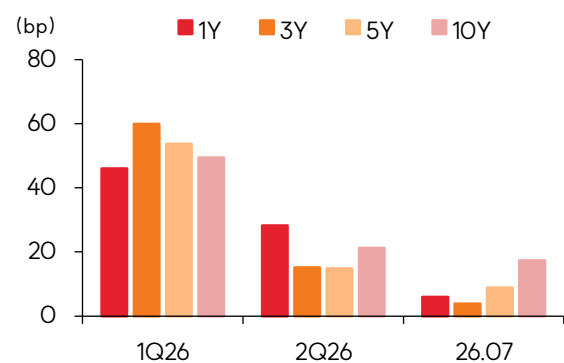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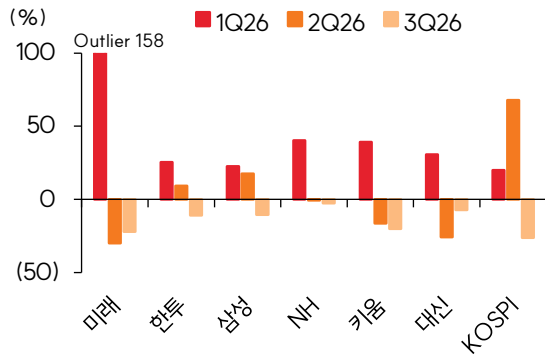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국고채 금리 QoQ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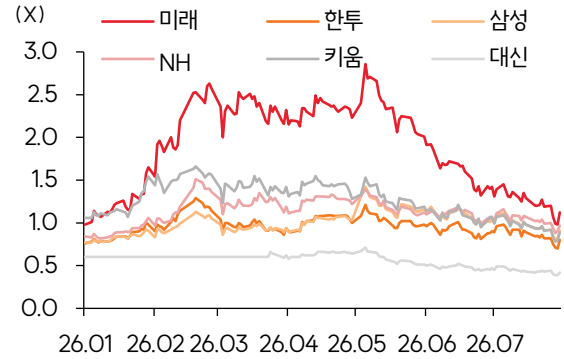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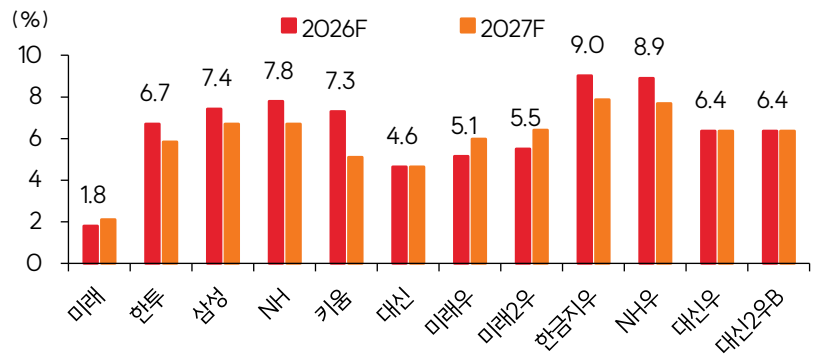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2MF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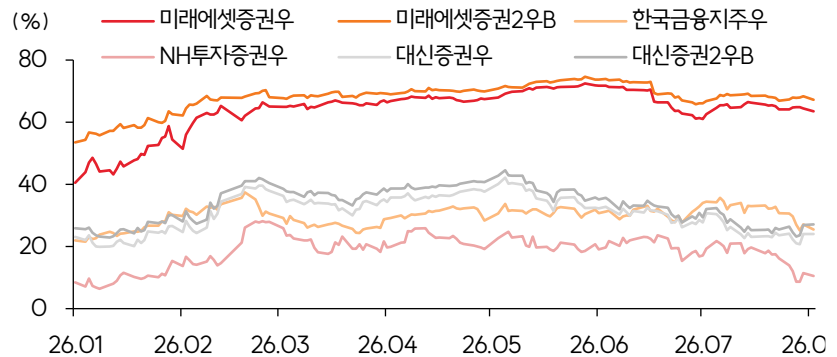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보통주 및 우선주 배당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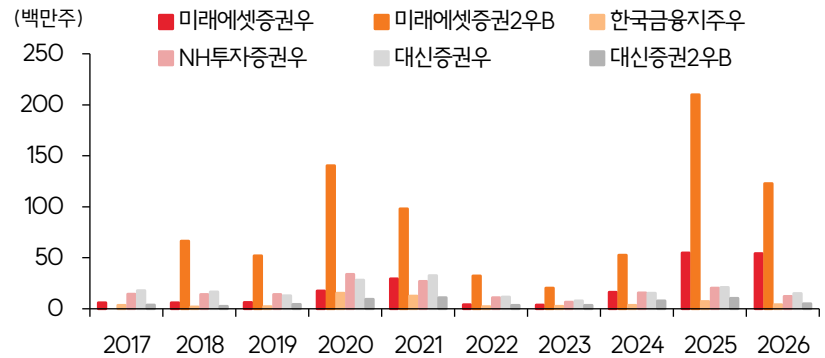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우선주 괴리율 추이



자료: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우선주 거래량 추이



자료: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8월 04일 기준)

매수

94.04%

중립

5.96%

매도

0.00%